

허택운 《만고강하》 간체 중국판의 삭제와 변경

李寅浩^{*}

<목 차>

1. 서론
2. 본문
 - 2.1. 허택운의 말년 집대성작 《만고강하》
 - 2.2. 방관자, 국외자의 객관적 관점
 - 2.3. 《만고강하》가 대만 서술에 대폭 할애한 이유
 - 2.4. 《만고강하》 간체 중국판의 삭제 및 변경
3. 결론

1. 서론

《만고강하》(萬古江河)는 두 버전이 있다. 저자 허택운(許倬雲)이 두 버전으로 쓴 것이 아니라 번체 대만판 원본을 중국 출판사가 간체자로 발행하면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여 동일 저자의 동일 서적이건만 두 버전이 된 것이다.¹⁾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중국 출판사가 대만 출판사로부터 판권을 얻어 발행하는 경우 번체자를 간체자로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국무원 직속 신문출판총서(新聞出版總署)가 언론과 출판을 엄격히 통제하기에²⁾

*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중국학과 교수

1) 본고가 기준으로 삼은 대만 번체자 원본은 영문한성출판주식회사(英文漢聲出版股份有限公司)의 2006년 3월 재판본이며, 간체 중국판은 상해문예출판사(上海文藝出版社)의 2006년 11월 간행된 4쇄본이다. 원문을 인용할 때는 원본의 장절(章節) 및 페이지를 명기했으며 내용은 모두 한글로 번역했다.

2) 1985년 6월 28일 중국 문화부(文化部)는 국무원(國務院)에 문화부 내에 국가관공국(國家

모든 출판물에 대하여 검열한다.³⁾ 따라서 중국의 각 출판사는 《출판관리조례》(出版管理條例)에 따라 자사의 출판물을 사전 점검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⁴⁾ 이 과정에서 간체 중국판 《만고강하》도 일부 내용이 삭제되거나 변경된 것이다. 삭제 혹은 변경된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수치스러운 부분은 은폐하거나 호도하려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런 경향은 국가 차원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만고강하》는 중국통사 성격의 문화 사이므로⁵⁾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번체 대만판 원본을 간체 중국

版權局) 설립을 건의했다. 동년 7월 25일 국무원은 문화부의 건의를 받아들였고, 그와 동시에 문화부 산하에 있던 출판국(出版局)을 국가출판국(國家出版局)으로 개명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국가출판국과 국가관련국은 명칭만 다를 뿐 실은 동일한 기구이다. 그들의 화법에 따르면 '一個機構、兩塊牌子'이다. 1987년 1월 국무원은 국가출판국을 철폐하고 국무원 직속으로 신문출판서(新聞出版署)를 신설했으나 국가관련국은 여전히 유지했다. 그러므로 신문출판서와 국가관련국도 여전히 '一個機構、兩塊牌子'이다. 2001년 신문출판서는 신문출판총서(新聞出版總署)로 개명하면서 정부급(正部級) 기구로 승격했다. 이에 따라 국가관련국도 정부급으로 승격했다. 일부 법적인 문제와 행정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신문 출판의 거의 모든 분야를 관리 감독하는 국무원 직속의 행정부서가 바로 신문출판총서(新聞出版總署)이다.

- 3) 2001년 12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이 반포하고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했던 《출판관리조례》(出版管理條例)는 모두 7장 68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후 WTO 가입 및 인터넷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국무원은 2011년 3월 16일 상기 《출판관리조례》를 수정 보완하여 동년 3월 19일 공포 실시했는데 모두 9장 74조로 늘어났다. 본 논문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출판관리조례》 제3장 '출판물의 출판'(出版物的出版)과 제4장 '출판물의 인쇄 혹은 복제 및 발행'(出版物的印刷或者復制和發行)이며, 특히 제3장 제25조에서 규정한 10개 금지 내용이다. 그 10개는 다음과 같다. ① 헌법이 확정한 기본 원칙에 반대하는 내용. ② 국가의 통일 및 주권 그리고 영토의 완전함에 위대한 내용. ③ 국가의 비밀을 누설하고 국가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국가의 명예와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내용. ④ 민족의 원한 및 불평등을 선동하고 민족의 단결을 파괴하거나 민족의 풍습과 습관을 침해하는 내용. ⑤ 사교와 미신을 조장하는 내용. ⑥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⑦ 음란 도박 폭력을 조장하거나 범죄를 교사하는 내용. ⑧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며,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⑨ 사회 공중도덕이나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해치는 내용. ⑩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에서 금지하는 기타 내용.
- 4) 중국 출판사는 일반적으로 '삼심제'(三審制)를 실시하고 있다. 이른바 '삼심제'란 세 차례 점검하는 제도인데, 편집부 담당자 1차 점검(編輯初審), 편집부 부장 2차 점검(編輯室主任復審), 편집장 3차 점검(總編輯終審)을 가리킨다. 물론 이들이 점검할 때는 원고의 정치적 경향, 사상 및 폭력, 학술 및 예술적 가치, 체례와 구성, 그리고 문장 수준까지 살핀다. 상기 《출판관리조례》 제4장 제40조에 따르면 제3장 25조에서 금지한 내용을 포함한 서적은 인쇄나 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만고강하》를 발행한 중국 《상해문예출판사》는 위 조례에 근거하여 원본을 손질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 5) 《만고강하》의 부제(副題)는 '중국 역사문화의 변천과 전개'(中國歷史文化的轉折與開展)이다.

판이 삭제 및 변경한 부분을 검토하면 중국 정부가 어떤 내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허택운의 《만고강하》 대만 번체자 원본과 간체 중국판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하고, 간체 중국판이 삭제하거나 손질한 부분을 점검하여 중국 정부가 은폐하거나 호도하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있다.

이와 함께 전제되어야 할 점이 있다. 《만고강하》는 논술의 객관성을 유지했는가? 만일 《만고강하》가 논술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면 혹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면 본고의 텍스트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론에서는 우선 저자 허택운과 《만고강하》 번체 대만판 원본의 내용을 소개하고 특징을 밝히면서 아울러 서술의 객관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어서 간체 중국판이 삭제하거나 손질한 부분이 무엇인지 분류별로 정리하고, 삭제 및 손질을 가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가일층 논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당 항목의 각주에서 처리하겠다.

2. 본론

2.1. 허택운의 말년 집대성작 《만고강하》

허택운의 원적은 강소성(江蘇省) 무석(無錫)으로, 1930년 중국 복건성(福建省) 하문(廈門) 고랑서(鼓浪嶼)에서 태어났다. 손발이 불편하여 어린 시절 정규 교육을 걸렀으나 중고등학교는 원적지로 돌아가 무석의 보인(輔仁) 학교를 다녔다. 이 시절, 동향 선배이자 대학자 전목(錢穆)의 명저 《국사대강》(國史大綱)을 탐독하며 학문의 기초를 다졌다. 1948년 가족과 함께 대만으로 이주하여 1950년부터 1956년까지 대만대학 사학과 및 동대학원에서 공부했

고, 이어서 대만 중앙연구원 역사언어연구소로 들어가 보조연구원이 되었다. 그 후 미국으로 건너가 1962년 시카고 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그 해 대만으로 돌아와 중앙연구원 역사언어연구소 부연구원(1962-1967), 연구원(1967-1970)으로 근무하며 동시에 대만대학 사학과 및 동대학원에 출강했다. (1962-1970) 중국 공산당 정부와 첨예하게 대치하던 대만 국민당 정부는 정권 유지 차원에서 대만 내 민주 인사들을 가혹하게 탄압했다. 그 여파로 학술계에서는 중국 대륙의 북경대학 및 청화대학의 잔여 세력이 몰려 있던 대만 중앙연구원과 대만대학 교수 및 졸업생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대만 국민당 정권의 비민주적 처사에 불만을 품었던 허탁운은 1970년 마침 미국 대학이 초빙하자 도미하여 피츠버그 대학 역사학과 및 사회학과 교수로 부임했고 1983년 피츠버그 대학 석좌교수가 되었다. 그간의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아 1980년 대만 중앙연구원 원사로도 선정되었다. 1989년부터 1995년 사이 홍콩 중문대학 사학과 석좌교수로 강의했으며, 그 이후로는 미국 하와이 대학 및 듀크 대학, 홍콩 과학기술대학 석좌교수로 강의했다.

허탁운은 중국문화사 및 사회사 그리고 중국 상고사 분야에 조예가 깊으며, 특히 사회학 이론으로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는데 탁월했다. 그간 영문 학술서 3권, 중국어 학술서 30여 권을 저술했으며 중국어 및 영어로 발표한 학술논문은 100편이 넘는다. 그의 학문적 관심사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중국 문화'이다. 《중국고대사회사론》(中國古代社會史論)과 《서주사》(西周史)를 통해 중국문화의 형성과 변천을 연구하며 그 전개 과정 및 특징을 탐구했고, 또한 《한대농업》(漢代農業)을 통해 중국문화의 경제적 기반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중국문화의 삼원색을 추출했는데, 그것은 '혈연단체'·'집약농업'·'문관제도'였다. 이 삼원색을 혈맥으로 삼고, 문화권의 확장 개념을 골격으로 삼아, 중국문화의 전개와 변천을 거시적으로 조감하여 집필한 저서가 바로 《만고강하》이다. 따라서 《만고강하》는 평생 연구의 집대성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만고강하》는 구석기 시대부터 1950년 전후까지 서술했다. 구석기 시대

부터 서술한 것은 그가 중국 상고사에 깊은 연구가 있기 때문이다.⁶⁾ 거의 매 장마다 중국문화의 발전과정상 특징을 다른 문화권과 비교 분석한 것도 물론 기본적인 의도는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뜻이지만 서양의 문화와 역사에 해박하지 않으면 시도할 수 없는 작업이다.⁷⁾ 또한 각 시대 별 시장경제 시스템을 간단명료하게 해설했다거나⁸⁾ 민간의 의식 변화 및 사회 구조의 변천을 쉽게 풀어내는 것은 그가 경제학 및 사회학에도 정통했음을 보여준다.⁹⁾ 《만고강하》의 집필을 마치고, 그로부터 약 3년 뒤 2009년 자선집(自選集)을 펴내며 이렇게 술회했다. “제가 전공으로 삼아 공부한 분야는 역사학, 고고학, 인류학, 거시 사회학이며, 수십 년 동안 제가 연구했던 분야는 거의 대부분 (중국) 문화와 사회의 변화였습니다.”¹⁰⁾ 이렇게 본다면 《만고강

-
- 6) 허택운이 대만대학에 진학했던 시기는 1950년인데, 그 당시 장개석의 패퇴와 함께 중국 대륙에서 대만으로 건너온 대학자들이 대만대학 사학과에 운집했다. 따라서 허택운은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대학자들로부터 배울 기회가 있었다. 이종동(李宗侗) 교수로부터 고대 사회학을 배웠고, 이제(李濟) 교수로부터 고고학을 배웠고, 동작빈(董作賓) 교수로부터 갑골문 및 은상 역법을 배웠다. 허택운이 훗날 《서주사》(西周史)를 저술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이며, 《만고강하》 제1장 <고대 이전 — 중국 지역의 고고학적 발굴>에서 구석기 시대부터 자신감 넘치게 서술한 것도 이런 기반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7) 허택운은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았는데, 그 당시 시카고 대학 동방연구소는 이집트 및 근동(the Near East) 고대사의 세계 최고 권위자들이 모여 있었다. 허택운은 이들에게 배우면서 중국 중심주의 세계관으로부터 점차 벗어나 세계사의 틀에서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조감하기 시작했다. 《만고강하》의 체계를 문화권의 확장 개념으로 구성했고 또한 세계사의 고도에서 중국 문화와 역사를 논했던 것도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8) 허택운이 스스로 밝혔듯 그의 연구는 사회 및 경제 연구로부터 시작하여 문화사 연구로 확대되었다. (“我一輩子做的工作, 是從社會經濟起手, 然後做了文化史研究.” 2006년 11월 9일, 동남대학(東南大學) 화영 문화 시리즈 강좌(華英文化系列講座)에서 행한 강연 내용 중에서 인용) 《중국고대사회사론》(中國古代社會史論), 《한대농업》(漢代農業) 등의 학술 저서로도 그의 학문적 편력을 알 수 있다.
- 9) 시카고 대학은 막스 베버 이론의 근거지인데, 허택운이 박사과정에 진학했을 때 마침 베버의 이론이 들어왔다. 허택운은 사회학을 공부할 때부터 중국의 문관제도에 주목했는데, 마침 문관제도는 베버 이론체계의 한 고리이며, 게다가 지도교수도 문관제도를 전공했기에, 허택운은 베버가 언급했던 관료제도와 중국 문관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특히 주목하게 되었다. 역대 중국사회의 기본 구조와 그 변화를 문관제도의 특징 및 변천에 근거하여 서술하는 내용이 《만고강하》 도처에 즐비하다.
- 10) 《허택운자선집》(許倬雲自選集) <서문> 참고. 중국 산둥교육출판사(山東教育出版社), 2009년.

하》는 필생 연구의 결정판이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만고강하》는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맨 앞에 <서문>, 맨 뒤에 <후기>가 붙어있다. <서문> 10페이지, <후기> 5페이지, 본문 457페이지로 총 472페이지, 중국어로 약 27만 자이다. 서명 《만고강하》는 당나라 시인 두보(杜甫)의 <희위육절구>(戲爲六絕句) 중의 둘째 수 마지막 구절 「不廢江河萬古流」(불폐강하만고류)에서 착안한 듯하다.¹¹⁾

11) 당나라 시인 두보(杜甫)의 <희위육절구>(戲爲六絕句) 중의 둘째 수, “王楊盧駱當時體, 輕薄爲文哂未休, 爾曹身與名俱滅, 不廢江河萬古流.”(왕발·양형·노조린·낙빈왕 등 당나라 초기 네 명의 작품은 그 당시의 특색을 잘 구현했는데, 천박한 자들이 글을 지어 하염없이 비웃는다. 자네들은 육신과 함께 이름도 결국 사라지겠지만, 황하와 양자강은 영원히 흐르리라.) 왕발·양형·노조린·낙빈왕 등의 작품은 육조(六朝) 시대의 부실한 풍조를 답습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작품의 내용이나 형식에서 새롭게 이룩한 것도 많으므로 결국 이들 네 분을 비웃었던 천박한 자들은 사라질 것이나 네 분은 황하나 양자강처럼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뜻. 이 책의 제목 《만고강하》(萬古江河)는 끝 구절 「不廢江河萬古流」(불폐강하만고류)에서 착안한 듯하다. 두보의 시를 감안하여 서명에 담긴 뜻을 유추하면, 중국의 역사와 문화라고 하여 완벽할 수는 없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매도하거나 비웃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사라질지언정 중국의 역사와 문화는 황하와 양자강처럼 영원히 흐르리라는 뜻을 담았지 않나 싶다. 그러나 《만고강하》의 <후기>에서도 밝혔듯 “중국의 역사도 시종일관 인류 공동체의 일부였을 따름”이라 했고, 또한 “모든 물이 만나는 광활한 바다에서 양자강·황하의 물방울은 다른 지역의 물방울과 혼합될 것입니다. 그때, 중국의 양자강, 황하, 인더스 강, 갠지스 강, 나일 강, 페르시아 만, 홍해, 지중해, 미시시피 강, 아마존 강, 콩고 강 등등 세계 각지의 물방울은 본디 구분할 수 없었던 바다로 흘러들어 너와 내가 없이 결합됩니다! 영원히 바다로 흘러갈 양자강과 황하, 그 물방울은 비단 중국의 것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것”이라 했으므로 허락운은 소위 중화주의나 중국 중심주의로 흐르는 것을 극히 경계했다. 게다가 《만고강하》를 통독하면, 허락운은 중국 문화의 전개와 발전을 황하와 양자강 유역의 확장에 비유하면서 중국 문화가 발생한 지리적 공간부터 언급하기 시작했고, 이어서 역사 기록 이전부터 중국 문화는 다원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주위 문명과 부단히 충돌하고 융합하면서 마침내 세계로 진입했다고 서술했다. 따라서 《만고강하》의 서술 구조는 중원의 중국으로부터 시작하여 중국의 중국, 동아시아의 중국, 아시아의 중국을 거쳐 마침내 세계의 중국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마치 청해성 고원에서 발원한 양자강과 황하가 중국의 구성구석을 적시며 바다로 흘러들어 마침내 오대양과 합류해 세계의 일원이 된 것과 같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서명 《만고강하》에는 고립된 중국이 아니라 세계 속의 중국이란 뜻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고전서》(四庫全書) 전자판(電子版)에서 ‘萬古江河’ 녀자로 검색하면 시(詩) 7수가 검출되는데, 그 중에 명나라 정선부(鄭善夫)의 ‘(전략)如何蜉蝣者, 乃欲撼大樹: 萬古江河流, 徒嗤爾曹誤.(후략)’(어이 하여 하루살이가 거목을 흔드느냐, 영원히 흐르는 황하와 양자강은 그대 잘못에 그저 웃을 뿐. 《鄭少谷集》 권25 <讀外曾祖鄭少谷詩>) 그리고 명나라 진현장(陳獻章)의 ‘(전략)誰家風雨花無恙, 萬古江河水自流.(후략)’(비바람에 뉘집 꽃이 무사할 수 있으랴만, 황하와 양자강은 영원히 흘러간다. 《白沙集》 권7, <次韻張侍御見寄>) 이 두 구절만이 본서의 서명과 비교적 연관이 있고, 나머지는 거리가

2.2. 방관자, 국외자의 객관적 관점

허택운은 《만고강하》를 집필하며 객관성을 유지했는가? 그는 불행하게도 선천성 장애로 말미암아 지금도 손발이 자유롭지 못하다. 행동이 극히 불편하기에 거의 모든 일에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는 입장을 취했다. 그런데 이런 불행이 오히려 그에게 방관자(傍觀者)의 시선을 선물했다. 그는 책을 쓸 때나 강연할 때마다 본인의 관점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하는 용어가 있는데 바로 '방관자'와 '국외자'(局外者)였다.¹²⁾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똑똑하게 잘 본다거나 방관자가 냉정하다는 속담도 있듯이 무엇이든 거리를 두고 조감할 때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다.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세계사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논할 수 있었던 비결은 허택운의 학문적 소양 이외에도 위와 같은 배경이 충분히 작용했을 것이다.¹³⁾

있어 보인다. 그러나 지명도에 있어서 두보의 시와는 비교할 수 없기에 두보의 위 시구에서 착안한 것으로 추정했다. 판소리에 목을 풀기 위해 부르는 남도(南道) 단가의 한 가지로 “만고강산(萬古江山) 유람(遊覽)할제...”로 시작되는 가사가 있다. 이 ‘만고강산’이나 ‘만고강하’나 같은 뜻이다.

- 12) 《심로집》(尋路集) <서문> 참고. 홍콩 팜방문화유한공사(八方文化有限公司), 1996년. 《허택운문학기》(許倬雲問學記) <서문> 참고. 중국 광서사범대학출판사(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8년.
- 13) 《만고강하》<서문>에서도 이렇게 밝힌바 있다. “중국문화에는 ‘존왕양이’(尊王攘夷)의 경향, 말하자면 중국 중심주의라든가 중화주의라 하여 주변 이민족을 깔보던 전통이 있습니다. 근세로 접어들어 민족주의 역사학은 민족국가의 건립과 동행했고 이런 것은 세계 근대사에서 중요한 현상이었습니다. 근대 중국 역사학도 이런 조류로부터 물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인의 역사관도 중국문화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자아 중심주의의 맹점을 드러내어 무릇 중국문화는 세계 최고라든가 가장 오래 되고 가장 우수하다는 식으로 자화자찬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역사학은 중국 이외 지역의 사물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중국문화가 기타 문화와 교류했던 역사적 사실마저 뻔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언급을 회피하곤 했습니다. 이 책이 서술하는 중국역사는 다양한 외국의 문화를 수용하여 이룩한 복잡다단한 중국문화로서 기존의 중국 중심주의적 논술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중국문화의 특색은 그 우수한 문명으로 주변국의 문화를 동화하거나 개발해준 데 있지 않습니다. 중국문화의 진정한 자랑은 다른 문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포용력에 있으며 또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한 능력에 있습니다.” 실제로 허택운은 은상 시대의 경이로운 청동기 공예와 이륜마차는 서방에서 전래되었다고 밝히며 이렇게 설명했다. “중국은 동아시아에 위치했지만 그러나 중앙아시아는 개방적인 지역이었습니다. 중국은 중앙아시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집단 이동의 영향으로 수레와 관련된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상당 수준에 이른 독자적인 도자기 기술을 기반으로 중국 특색의

한편 허탁운은 대만 국민당 정부를 옹호했을까? 학문적 고향이던 대만 중앙연구원 시절의 상황을 그는 아래와 같이 술회한 적이 있다.

(전략) 1960년대 대만은 독재 정치였다. 당국은 자유주의의 싹을 근절하고자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당국은 대만 중앙연구원과 대만대학을 중국 대륙의 북경대학과 칭화대학의 잔여 세력으로 간주하여 철저히 탄압했다. 정보기관은 왕세걸(王世杰)·이제(李濟) 선생을 지목하여 암암리에 미국의 지지를 받으며 자유주의를 전파하는 반정부 인사로 규정했다. 당국은 전방위로 압박했는데 외부의 감시는 둘째 치고 중앙연구원 역사언어연구소 내부에도 당국의 공갈협박을 이기지 못해 밀고자가 된 이도 있었고 심지어 정보원이 침투하기도 했다. (중략) 중앙연구원의 왕세걸, 이제 선생이 직격탄을 맞았는데, 일부 잡지는 음으로 양으로 공격하여 당국과 호흡을 맞췄으며, 익명의 편지와 협박 전화도 수시로 걸려왔다. 왕세걸, 이제 선생은 외부의 핍박에 맞서 연구원들을 보호하며 적어도 중앙연구원의 연구 분위기를 최대한 유지하고자 애썼다. 그러나 대만대학은 비교적 불행하여 전사량(錢思亮) 총장이 물러났고 이때부터 10여 년 간 대만대학은 암울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중략) 나는 당시 충격에 빠졌는데 마침 미국 출장으로 6개월 머물고 다시 귀국해보니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1970년 미국 대학의 초빙으로 도미했는데 여러 선배들의 조언에 따라 미국에 몇 년 더 머물다가 1974년 다시 귀국했다. 귀국 후 이제·심강백(沈剛伯) 선생을 찾아보니 그 사이 겪었던 참사를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사악한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중앙연구원 역사언어연구소가 학술독립의 학풍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웠다. (후략)¹⁴⁾

이상으로 보면 허탁운은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에 대해 결코 호의로 일관하지 않았다. 따라서 《만고강하》는 중국의 근현대사 부분을 서술할 때도 객관

청동기 문화를 신속히 발전시켰습니다. 외부의 지식을 흡수하여 자신의 고유한 기술과 융합하고 그로 인해 창의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인류 역사상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기원전 2천 년대에 중국 지역에서 발생한 수많은 변화는 이런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2장 1절 <청동기 시대 진입> p.50) 또한 중국인이 즐기는 분식도 서역으로부터 전래된 것이며, (3장 5절 <북방 유목문화와 중국문화의 접촉> p.112, 4장 6절 <중고 시대의 의식주행> p.171), 주거 환경이 좌식에서 입식으로 변한 것도 북방 유목민족의 영향이라고 밝혔다(4장 6절 <중고 시대의 의식주행> p.171). 그 외에도 3장 7절<불교의 전래와 도교의 형성>(p.125), 4장 5절 <천문 수학 의약>(p.166), 5장 7절<근고 시기 과학과 기술의 발전>(p.248), 6장 4절 <서양의 제1차 충격과>(p.288), 7장 8절 <중국과 서양의 문화 접촉>(p.379), 8장 6절 <시대사상과 문화 변천>(p.436) 등에서 중국문화가 다양한 외국의 문화를 수용했음을 밝히고 있다.

14) 《허탁운문학기》<남항술구>(南港述舊) p.40-41.

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서술했지 모택동의 공산당이나 장개석의 국민당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두둔할 리는 없다고 판단해도 무방할 듯하다.

2.3. 《만고강하》가 대만 서술에 대폭 할애한 이유

《만고강하》는 기존의 중국문화사나 중국통사와 비교할 때 특징이 하나 더 있다. 구석기 시대를 논할 때부터 대만을 거론했으며, 특히 3장 6절 <남방 개척>부터는 상당히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이는 물론 대만이 중국 역사 및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 역사에 등장할 때마다 언급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다음 두 가지 뜻을 특별히 기탁한 게 아닐까 생각된다. 첫째는 대만의 거중국화(去中國化) 경향에 대한 우려이고, 둘째는 대만 동류집단 간의 과격한 충돌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해결책 모색이다.

1장 4절 <신석기문화의 지역별 유형 및 융합과정>에서 '남방 신석기문화'를 거론할 때 출토 유물에 근거해 대만을 동남방 문화로 규정했다. 이어서 3장 6절 <남방 개척>에서는 '남도어족'의 근원은 대만이며, 더욱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 대륙의 복건성·광동성의 고대 월족(越族)까지 이른다고 추정했다. 또한 고대 월족의 언어도 대만으로부터 출발한 남도어족과 상당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론했다. 6장 2절 <인구와 생활 자원>에서는 감자가 중국으로 전래된 것을 논하면서 복건성 및 대만 지역으로부터 들어왔다고 서술했다. 6장 3절 <해양의 격랑>에서는 중국인의 해상 활동을 중점적으로 논하며 대만이 어떻게 중국사 및 세계사로 진입했는지 정성공(鄭成功)을 비롯한 관련 인물과 사건을 제시하며 자세히 논했다. 특히 6장 10절 <대만의 역사 무대>에서는 기꺼이 한 절을 할애했는데, 태평양이 새로운 항로로 각광받자 동쪽으로 태평양을 마주한 대만이 대형 무역선의 통로가 되면서 마침내 중국의 동해 및 남해의 중요 거점으로 떠올랐다는 이야기로 서두를 꺼냈다. 이어서 송나라 동전이 대만 유적에서 많이 발견되는 점, 그리고 중국 연안을 장악했던 중국인

무장집단이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열강 및 일본과 각축하며 무역을 진행할 때 이미 대만을 무대로 삼았고, 마침내 정성공이 대만을 점거하여 명나라 망명 정부를 세웠는데 이때부터 대만을 개발하여 수천 년 동안 중국과는 유리되었던 외딴섬 대만은 마침내 중화문화권의 일부가 되었다고 서술했다. 7장으로 접어들면 또 다시 2절 <대만 개발>에서 한 절을 할애했는데, 17-18세기 세계적 대규모 인구 이동과 관련하여 당시 대만의 인구 폭증은 중국 대륙으로부터의 이민 때문이며, 특히 강희 황제 말엽에는 중국대륙의 한족 부호들이 계획적으로 대만을 개척하여 마침내 대만은 신속히 한화(漢化)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7장 5절 <민간 사회조직>에서는 복건성 천주(泉州) 지역에서 발원한 남방의 마조(媽祖) 신앙이 마조묘(媽祖廟)의 분향(分香)제도를 통해 대만까지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음을 서술하고, 현재 대만에서 성행하는 민간 신앙 일관도(一貫道)도 유불도 삼교의 합일을 주장했던 중국대륙의 백련교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공내전(國共內戰)에서 패퇴하여 대만으로 물러난 장개석 국민당 정부와 대만 역사상 최대 비극의 하나인 228사건은 물론 중국대륙의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8장 9절 <대만 백년의 변화>에서도 역시 한 절을 할애했는데, 일본 식민지 시절에도 중국문화를 잊지 않았던 대만 백성들이 많았으며 좌익 우익을 막론하고 일본 황민이 되기를 거부했던 지식인이 많았다는 사실을 실례를 들어 서술하고 있다. 아시아 최초의 대만 '공화국'도 실은 일본 식민지 통치에 반대하고자 대만의 관리와 민중들이 공여지책으로 선포한 것이라 밝혔다.

이상을 종합하면, 현재 대만의 민진당(民進黨) 일부 파벌이나 그에 동조하는 대만 민중들이 대만 독립을 주장하며 내세우는 논거가 실은 얼마나 과거 역사에 무지한지 보여준다. 거중국화는 대만의 문화적 뿌리를 애써 외면하는 처사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처럼 자세히 대만의 문화와 역사를 논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편 대만 동류집단 간의 과격한 충돌은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족의 대만 이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만은 기본적으로 이민으로 개

척된 사회이므로 지방 세력이 강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서술했다.

대만은 정씨 세력권에서 청나라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대규모 이민이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대만은 신속히 한화(漢化)되었습니다. 청나라 정부는 부·주·현·청(府·州·縣·廳)을 개설하여 한족을 통치했고, 원주민들은 한족의 경제 및 문화 압력에 점차 동화되고 말아 대만은 완전히 한족의 세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민으로 개척된 사회이므로 지방 세력이 강력했으며, 그로 인해 동류집단 간에 패싸움이 잦아 대만 기층사회의 강렬하고도 선명한 동류집단 의식이 형성되었습니다(p.347).

이 문제에 관해 허택운은 아래와 같이 그 원인을 자세히 분석했다.

대만의 지방 세력은 강력했는데, 이런 경향은 모든 개척 사회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관청의 공권력이 약했으므로 지방 호족들은 토지 이익을 지키고자 그들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조직했습니다. 17-18세기에 가장 먼저 대만으로 건너온 이주민들은 복건성 천주(泉州) 출신이었고, 그 후 장주(漳州) 출신들이 뒤를 이었으며, 광둥성의 객가(客家)들이 가장 늦게 이주했습니다. 이주민들은 처음엔 독신남이 개별적으로 이주했고, 이어서 업주들이 모집한 일꾼들이었으며, 마지막에는 동족이나 동향이 집단으로 이주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세 개 집단의 분포 상황을 살펴보면 대략 천주 출신은 중남부 지역, 장주 출신은 중북부 지역, 객가 출신들은 구릉이나 대지(臺地)에 거주했지만, 이들 집단의 촌락 경계선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면 마치 개의 이빨처럼 들쭉날쭉 서로 인접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나 물길을 차지하기 위해 출신지나 고향 혹은 친척 그리고 친구끼리 뭉쳐 상대측과 패싸움을 했는데 쌍방 간에 수 백 천 명씩 동원했으므로 소규모 전쟁을 방불케 했습니다. 민란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개 복건성 출신들이 주모자였습니다. 관청이 진압에 나설 때 객가 출신들이 종종 나서서 관청을 도왔으므로, 당초 관청과 민간의 충돌이 마침내 방언 집단 간의 패싸움으로 번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공권력이 법률로써 질서를 유지하지 못했으므로 지방 이익 집단이 폭력으로 자원을 쟁탈하는 과정에서 서로 지지 않으려고 투쟁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어디든지 새롭게 개척된 지역은 위와 비슷한 과정을 대부분 겪었습니다. 다만 대만은 동류집단 간의 투쟁이 발생하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았고 또한 동류집단 간의 충돌 습관이 후손들의 기억 속에 여전히 남아 있어 그 여파로 인해 오늘날 까지도 대만 사회의 동류집단 공동체 의식은 유달리 강렬합니다(p.346).

그렇다면 《만고강하》는 대만인을 위해 저술한 것일까? 당초 구상은 대만인을 위하여 저술한 것이다.¹⁵⁾ 그러나 양안 관계의 평화를 위하여 중국대륙의 중국인들한테 왜 대만에 대만독립 세력이 존재하며 그에 추종하는 민중이 적잖은지 밝히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⁶⁾

이제 구체적으로 간체 중국판이 어떤 부분을 삭제하거나 변경했는지 점검해 보기로 하겠다.

-
- 15) 허탁운(許倬雲): “이 책은 원래 대만 사람들 보시라고 저술한 것이라, 대만에서 출판했습니다. (후략)” (許倬雲: “因為這本書本來是寫給臺灣人看的, 本來在臺灣發行, 在大陸發行是蹦出來的.”) 《訪問歷史》 <只有“全人類”和“個人”是真實的>,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7. 09.)
- 16) 다른 글에서 허탁운은 이 문제에 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회우(李懷宇): “중국 대륙에 있는 우리로서는 대만의 ‘거중국화’ 경향이 이처럼 강력한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다.” 허탁운: “제가 설명해드릴 수 있습니다. 1895년 청나라가 대만을 일본에 할양할 때 대만 사람들의 감정은 이랬습니다. 당신에게 열여덟 명의 아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를 떼어내 주었느냐? 왜? 왜 나를 버렸는가? 대만을 할양하자 정이 떨어져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일본은 조선이나 중국의 동북 지역을 통치할 때와는 달리 대만 통치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당시 대만 총독 고토 신페이는 대만을 현대적으로 건설하자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전염병을 퇴치했고 수리 시설을 정비하고 교육을 보급하고 청렴한 법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조치로 인해 대만 백성들은 심적으로 투항하고 말았습니다. 1895년부터 1905년까지 10년 동안 대만의 대일 항쟁이 부단히 전개되었는데 그로 인해 20여 만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상당히 많은 희생을 치른 것이죠. 그러나 1905년 이후로 일본의 정책이 바뀌자 대만 사람들은 충심으로 믿고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둘째 이유는 대만 독립 운동인데, 이 운동의 주동자들은 모두 일제시대 황민의 후손들입니다. (중략) 이들은 일본으로 유학을 갔는데 대부분의 대대로 진학했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대만으로 돌아오지만 고위 관리가 될 수도 없고 대기업을 경영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의사는 가장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황민이며, 그들의 가족은 모두 일본어를 사용했습니다. (중략) 이들은 기본적으로 중국식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기본적으로 완벽하고도 철저한 일본 교육을 받았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고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과 내전을 벌일 때 대만을 접수하려 온 군대는 복건성에 주둔하던 부대로서 군기가 엉망이었습니다. 또한 복건성 지역의 공무원도 부패했습니다. 군기가 나쁜 군대, 부패한 공무원을 대했던 대만 사람들은 무척 실망했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군기가 잡힌 일본 군대를 줄곧 봐왔기 때문입니다. (중략) 그들의 머리에 박힌 인상은 중국은 후진국이고 일본은 선진국이었습니다. 장개석이 90만 명을 이끌고 대만에 진주한 이후 대만의 정권은 기본적으로 중국 대륙인들의 손아귀로 들어갔고, 대만인 중에 장개석 정권과 비교적 협조했던 자들만이 권력의 가장자리를 조금 맛봤을 따름입니다. 이런 점도 대만인들이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이제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다면 이런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합니다. (후략)” (《訪問歷史》, 廣西師範大學出版社, 第1版, 2007年 9月 1日)

2.4. 《만고강하》 간체 중국판의 삭제 및 변경

《만고강하》 간체 중국판이 번체 대만판 원본을 삭제하거나 변경한 부분은 총 59군데이다. 이 중에 삭제한 부분은 39군데, 변경한 부분은 16군데, 원본의 명백한 오타를 수정한 부분은 2군데, 기타 2군데이다.

삭제하거나 변경한 분량이 적을 때는 한 두 단어 혹은 한 두 구절에 불과하지만 많을 때는 한 두 단락 내지 한 두 페이지에 달한다. 따라서 분량이 적은 경우는 그대로 인용하고, 분량이 많은 경우는 일부만 제시한 뒤 나머지 내용은 장절(章節) 및 페이지를 밝히면서 각주로 처리한다. 또한 한 단락에 삭제와 변경이 동시에 진행된 경우는 비중을 감안하여 삭제 혹은 변경으로 분류했고 구체적인 상황은 역시 각주로 밝혔다. 사안별 분류는 필자가 내용에 따라 임의로 구분한 것이며, 장절 및 페이지 표기는 모두 번체 대만판 원본에 따랐다.

■ 삭제1. 대만 독립을 경계하는 내용

(1) 남도어족의 근원은 대만이라는 사실이 거의 정설로 굳어졌습니다.¹⁷⁾

17) 간체 중국판은 아래 두 단락을 삭제함. 단락1: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남도어족 지구, 말하자면 대만으로부터 이스터(Easter) 섬, 마다가스카, 뉴질랜드에 이르는 광대한 지구를 남도어족 구역이라 합니다. 남도어족의 언어 분포는 태평양 지역의 여러 민족이 지난 2천 년 간 이동했던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민족의 이동 방향은 광대한 남태평양 군도 사이에 해류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남도어족의 근원은 대만이라는 사실이 거의 정설로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근원을 더욱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 대륙이 더욱 오래된 근원일 것입니다. 중국의 남방에 거주하던 민족이 해협을 건너 대만으로 이주하고, 대만에서 다시 광대한 남태평양으로 이주했을까요?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데 아직까지 사소한 단서만 있으므로 완벽하게 답안을 제시하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현재 파악할 수 있는 점으로는 남태평양의 문화가 중국의 남방이나 서남방의 현재 문화와 유사한 부분이 무척 많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시도해볼 만한 연구는 DNA 분석을 통해 위 가설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단락2: “필자는 이런 가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족이 끊임없이 남쪽으로 이주하자 원주민들은 대부분 한족에게 동화되었지만 그 중 일부는 점차 더욱 남쪽으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제한된 땅에 인구의 압박이 심해지자 그 여파로 해안가에 살던 원주민 중 일부는 바다를 건너 해도(海島)로 이주했을 것입니다. 중국의 남부에서 가장 가까운 해도는 대만과 해남도이므로 이 두 섬이 남방 이민의 기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대만과 필리핀은 근거리이고, 해남도로부터 동남아시아 및 말레이시아까지도 그리 먼 거리는 아닙니다. 만일 이 가설이 증명된다면 진한 제국이 중국의 남부 지역을 장기적으로 완만

(2) 가령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깊게 진행하면 필자가 확신하건대 현재 절강성 동부 지역의 온주(溫州)、태주(台州)、처주(處州) 방언은 틀림없이 고대 월족의 언어와 상당한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복건성, 광둥성의 고대 월족 언어는 대만으로부터 출발한 남도어족과 상당한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3장 6절 <남방 개척> p.125)

(3) 대만의 평포족(平埔族)이 한족에게 융합된 것도 근자에 발생한 똑같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4장 2절 <중국과 이웃 민족> p.153)

(4) 대만이 '대(大) 역사'에 진입한 시기는 (중략) 동쪽으로 태평양을 마주한 대만이 대형 무역선의 통로가 되면서 마침내 중국의 동해 및 남해의 중요 거점으로 떠올랐을 때입니다.¹⁸⁾

(5) 또한 언어학자들의 추론에 따르면 태평양 남도어계(南島語系)의 언어는 그 근원을 추적하면 2천여 년 전의 대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6장 10절 <대만의 역사 무대> p.326)

(6) 청나라 정부의 대만 원주민 정책은 전반적으로 말하여 일을 만들지 않고 백성을 편안하게 했으며 또한 최대한 자치를 누리도록 허용했습니다.¹⁹⁾

하게 그러나 안정적으로 개척한 결과, 그 여파가 도미노 현상처럼 번져 마침내 남태평양까지 도달했다고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세계사의 관점에서조차 충분히 토론할 만한 주제이건만 아직까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으므로 깊이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장 6절 <남방 개척> p.124)

- 18) 간체 중국판은 번체 대만판 원본의 다음 한 단락 전체를 삭제함. “중국의 역사기록에 대만은 오랜 세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삼국시대 그리고 수나라 때 중국이 대만에 진입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그 때 두 차례 해상활동에서 중국의 원정대가 과연 대만에 진입했는지 혹은 지금의 유구(琉球)에 진입했는지 지금까지도 정설이 없습니다. 대만이 절강성과 복건성에 인접했는데도 중국의 역사기록에 오랫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주된 이유는 해류가 대만해협을 빠져나갈 때 소위 ‘흑수구’(黑水溝) 혹은 ‘흑수양’(黑水洋)이라 하여 유속이 갑자기 빨라져 일반 선박들은 가로 질러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선박들은 대부분 해류에 휩쓸려 남쪽으로 떠내려갔습니다. 그러므로 복건성에서 바다로 나가더라도 대개 해류를 따라 지금의 필리핀 쪽으로 가거나 혹은 말레이 반도 양안을 따라 가다가 남중국해를 경유하여 동남아시아 일대에 도착했습니다. 선박이 만일 절강성이나 복건성에서 바다로 나와 북쪽으로 향한다면 일본이나 조선반도 남단에 도착하며, 가로 질러 간다면 유구열도(琉球列島)에 도달합니다. 이 항로는 해류가 여러 섬에 부딪히며 역류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류의 방향에 익숙한 선박들은 흐름에 따라 항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의 해류는 복잡하게 흐르고 소용돌이도 있지만 그러나 유속이 그리 빠르지 않으므로 선박들은 해수에 휩쓸려 떠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복건성이나 절강성에서 바다로 나가는 경우는 남쪽으로 향하든 북쪽으로 향하든 굳이 대만을 지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만이 ‘대(大) 역사’에 진입한 시기는 유럽 국가들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뒤 태평양이 새로운 항로로 각광받자, 동쪽으로 태평양을 마주한 대만이 대형 무역선의 통로가 되면서 마침내 중국의 동해 및 남해의 중요 거점으로 떠올랐을 때입니다.” (6장 10절 <대만의 역사 무대> p.325)

(7)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중엽까지 대만은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격변을 겪었습니다. 대만은 중국의 일개 도서에서 두 차례나 외국의 침략을 받았고 (프랑스와 일본) 또한 일본에 할양된 뒤 식민지로 전락해 일본에 강제적으로 동화되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대만은 중국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228사건의 비극을 겪었으며, 중국 대륙에서 내전이 발발하자 대만은 또 중국과 장기간 대치하면서 다시 한 번 중국에 동화되었습니다. 이처럼 기구한 대만의 운명은 1950년까지 전반기를 걸었을 뿐 그 이후 어떤 행로를 보일지 그 당시로서는 속단하기 힘들었습니다. (8장 9절 <대만 백년의 변화> p.452)

(8) 대만의 관리와 민중들은 궁여지책으로 대만 민주공화국을 세우고 대외적으로 대만은 독립 공화국임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동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입니다! (8장 9절 <대만 백년의 변화> p.454)

(9) 대만의 엘리트들은 대만이 응당 누려야 할 인권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임헌당(林獻堂) 등은 대만인의 투표권, 대만 의회(議會) 및 대만인들의 평등한 지위를 쟁취하고자 대만문화협회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좌익 계열의 대만 노동운동은 일본 자본으로 설립된 공장에서 근무하는 대만 노동자들의 노동권 및 복지를 쟁취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엘리트든 노동자든 간에 대만 백성들 대다수는 그저 머리를 조아리며 순화된 「황민」이 되기를 거부하며 본인의 독립적인 인격과 인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²⁰⁾

(10) 1895년 청나라 정부가 대만을 일본에 할양하면서부터 1945년 대만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무려 50년 동안 두 번이나 국가가 바뀌었으나 모두 대만 백성들이 스스로 결정했던 것이 아닙니다. (중략) 양안의 백성들은 1895년부터 1945년까지의 50년을 서로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으며 또한 희망 사항도 피차간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 228사건의 근본적인 배경입니다. 어떻게 오해를 풀고 상처를 아물게 할 것인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역사는 화해의 방향으로 나아

19) 간체 중국판은 “청나라 정부의 대만 원주민 정책은 전반적으로 말하여 일을 만들지 않고 백성을 편안하게 했으며 또한 최대한 자치를 누리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일을 만들지 않고 백성을 편안하게 했으며 또한 최대한”을 삭제했다. (7장 2절 <대만 개발> p.343)

20) 간체 중국판은 다음 단락, 즉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을 때”부터 본 절(節)의 끝까지 모두 삭제했고, 그 대신 극히 일부 내용만 편집하여 다음과 같이 만들었다. “1930년 대만에서 무사사건(霧社事件)이 발생했습니다. 대만 중부의 원주민 부락 무사(霧社) 주민들이 일본 경찰의 모욕과 탄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봉기했는데, 일본 군대는 대포와 독가스를 동원하여 부락 전체를 초토화했습니다.”(여기에 이어서 원문에 없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 줄 추가했다. “이것은 중국 항전사의 비장한 한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다음 구절로 끝냄. “1895년 청나라 정부가 대만을 일본에 할양하면서부터 1945년 대만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대만 백성들의 슬픔과 고통을 절절이 느낄 수 있어 쓰라린 눈물이 쏟아집니다.” (8장 9절 <대만 백년의 변화> p.456)

갈까요? 아니면 충돌과 공멸의 방향으로 질주할까요? 관건은 각계각층 인사들의 지혜에 달렸습니다.²¹⁾

■ 사례2. 민족 간의 불화나 내부 분열을 경계

(1) 다만 대만은 동류집단 간의 투쟁이 발생한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았고 또한 동류집단 간의 충돌 습관이 후손들의 기억 속에 여전히 남아 있어 그 여파로 인해 오늘날까지도 대만 사회의 동류집단 공동체 의식은 유달리 강렬합니다. (7장 2절 <대만 개발> p.346)

(2) 현재 일관도는 대만과 해외에서 포교하는데 신도는 1백만 명을 상회합니

- 21) 간체 중국판은 8장 9절 <대만 백년의 변화>(p.457) 전체를 삭제함. 번체 대만판 원본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1895년 청나라 정부가 대만을 일본에 할양하면서부터 1945년 대만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무려 50년 동안 두 번이나 국가가 바뀌었으나 모두 대만 백성들이 스스로 결정했던 것이 아닙니다. 대만 작가 오탁류(吳濁流, 1900-1976)는 대만을 가리켜 '아시아의 고아'라고 했는데, 이 한 마디로도 대만 백성들의 슬픔과 고통을 절절히 느낄 수 있어 쓰라린 눈물이 쏟아집니다. 228사건은 국공내전 이후 대만의 최대 비극이었습니다. 대만 백성들이 중국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는 마치 어릴 적 고아가 된 자식이 고향집을 찾아가 생전 만난 적이 없던 가족을 보는 것처럼 얼마나 그리웠을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막상 진이(陳儀)가 이끌고 대만에 상륙했던 고국의 군대는 대부분 복건성 지역에서 나온 군인들로서 훈련도 부족했고 기강도 해이하여 대만 백성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었던 일본 황군과는 도무지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대만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짐작됩니다.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기 전부터 일본 정부는 중국의 낙후와 야만 그리고 '청나라 놈들'(清國奴)의 빈곤과 우매와 무능을 대만 백성들에게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일본의 선전은 먹혀 들어가 228사건 당시 수많은 대만 백성들은 중국과 중국인에 대해 호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국민당 군대는 228사건을 처리할 때 잘못된 정보에 이끌려 부당하게 진압했습니다. 일본 식민지 시대 황민화(皇民化) 교육을 지방 엘리트 계층을 양성했는데, 228사건 당시 각지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이 계층 출신이므로 그들이 중국과 일본에 대해 공정하게 인식하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국민당 정부가 대만을 접수할 때 대만의 또 다른 계층 인사들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후자는 본인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전자를 제거하려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228사건 당시 대만의 원래 엘리트들이 속속 체포되어 살해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명단과 은신처는 과연 누가 제공했습니까? 사건의 배후에서 누가 이익을 챙겼습니까? 굳이 여러 말을 하지 않아도 연관성은 명약관화합니다. 228사건은 그 이후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의 상처가 되었는데, 상처가 워낙 깊어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효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컨대, 대만은 두 차례나 국가가 바뀌었지만 그 모두가 대만 백성들이 스스로 결정한 일이 아닙니다. 양안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와 동시에 대만 내부의 사회 문화 집단 간의 모순이 격화된 것도 실은 그 근원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양안의 백성들은 1895년부터 1945년까지의 50년을 서로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으며 또한 희망 사항도 피차간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 228사건의 근본적인 배경입니다. 어떻게 오해를 풀고 상처를 아물게 할 것인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역사는 화해의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아니면 충돌과 공멸의 방향으로 질주할까요? 관건은 각계각층 인사들의 지혜에 달렸습니다."

다. 일관도의 발전 모델로 그 당시 백련교의 조직과 활동 형태를 대략 추측해 본다면, (7장 5절 <민간 사회조직> p.363)

(3) 마음이 가장 아픈 것은 동류 집단 사이의 원한이 부활한 것입니다. 일부 대만 백성은 일본 군대의 앞잡이가 되거나 일본 군대에 빌붙어 위세를 부렸는데, 그들은 기타 집단의 토지를 빼앗았고 심지어 부녀자나 어린이까지 죽여 가장 추악한 인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8장 9절 <대만 백년의 변화> p.454)

(4) (전략) 태평양 전쟁 당시 대만인 중에는 황군(皇軍)이 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1930년 대만에서 무사사건(霧社事件)이 발생했습니다. (중략) 일본 군대는 대포와 독가스를 동원하여 부락 전체를 초토화했습니다. 무사 봉기에서 저항했던 자와 황군에 지원 입대한 자를 비교하면 같은 대만인이라도 어떻게 이처럼 다를 수 있을까 탄식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7년이 흘러 대만에서 비극적인 228사건이 터졌는데, 그때 일본 군가를 불렀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또 무엇이었는지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²²⁾

■ 삭제3. 중국 공산당의 행위나 정책에 대한 비판

(1) (전략) 대일 항전 이전에 중국 공산당의 혁명은 국제 사회주의 혁명운동의 일부였을 따름입니다. 그 후 10여 년 세월이 흘렀지만 국제적인 사회주의 혁명은 여전히 중국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중략) 민족주의는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을 격파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모택동이 1949년 9월 정치협상회의 개막식 때 선포했던 것은 ‘중국인은 이제 일어섰습니다’였지, ‘사회주의가 일어섰습니다’가 아닙니다. 모택동은 민족주의에 호소하여 정권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후략)²³⁾

22) 간체 중국판이 삭제한 원문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을 때 수많은 대만 상인 및 의사들이 중국 대륙의 각지에서 활동했는데 특히 동북 지역에 많이 몰려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 국민이자 또한 중국인이기도 하여 신분이 상당히 애매했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침략할 때 대만에 본적을 둔 남자들이 징발하여 잡역부로 참전시켰는데, 태평양 전쟁 당시 대만인 중에는 황군(皇軍)이 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1930년 대만에서 무사사건(霧社事件)이 발생했습니다. 대만 중부의 원주민 무사(霧社, 지금의 남투현(南投縣) 인애향(仁愛鄉)) 주민들이 일본 경찰의 모욕과 탄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봉기했는데, 일본 군대는 대포와 독가스를 동원하여 부락 전체를 초토화했습니다. 무사 봉기에서 저항했던 자와 황군에 지원 입대한 자를 비교하면 같은 대만인이라도 어떻게 이처럼 다를 수 있을까 탄식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7년이 흘러 대만에서 비극적인 228사건이 터졌는데, 그때 일본 군가를 불렀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또 무엇이었는지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8장 9절 <대만 백년의 변화> p.456)

23) 8장 1절 <내외위환> (p.406). 간체 중국판은 이 단락의 절반가량이 삭제되었고, 관건적

인 용어 몇 개도 변경되었다. 우선 삭제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① “대일 항전 이전에 중국 공산당의 혁명은 국제 사회주의 혁명운동의 일부였을 따름입니다. 그 후 10여 년 세월이 흘렀지만 국제적인 사회주의 혁명은 여전히 중국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② “9월 정치협상회의 개막식 때 선포했던 것은” ③ “사회주의가 일어났습니다”가 아닙니다.” ④ “모택동은 민족주의에 호소하여 정권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변경한 용어나 구절은 아래와 같다. ‘총사령관 장개석을 납치’는 ‘장개석을 체포’로 바꾸었고, ‘중국 공산당의 유격 기지’는 ‘중국 공산당의 근거지’로 바꾸었다. 가장 심각한 변경을 꼽자면, ‘민족주의는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을 격파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를 ‘국제적인 공산주의를 본토화 했던 것이 곧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을 격파할 수 있었던 중요 요인입니다’로 고친 부분이다. 대만 번째자 원본의 뜻을 의도적으로 고쳤다. 문장의 주어가 ‘민족주의’에서 ‘국제공산주의의 본토화’로 바뀐 것이다. 문장의 주어가 바뀌어 의미가 바뀌었기에 뒷부분도 “사회주의가 일어났습니다”가 아닙니다”와 함께 “모택동은 민족주의에 호소하여 정권을 잡았기 때문입니다”를 삭제했다. 중국 출판사는 왜 관건적인 문구를 삭제하거나 변경했을까? 장개석의 당시 직함 ‘총사령관(統帥) 두 자를 삭제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원문의 ‘납치(劫持)’를 ‘체포(抓捕)’로 바꾸면서 바로 앞에 ‘쿠데타(兵變)’을 그대로 두면 앞뒤가 어긋나는 이야기가 된다. 군부에서 하극상이 발생한 것이며 부하가 상관을 ‘납치’했다면 했지 결코 ‘체포’했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체포’라는 용어가 성립하려면 하극상이 충분히 용인될 만한 대의명분이 있어야만 하는데 그것이 실은 민족주의였다. 당시 장개석은 날로 세력이 커지던 중국 공산당을 제압하고자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기보다는 오히려 ‘우선 국내부터 안정시키고 외적을 물리친다(安內攘外)’는 방침 아래 공산당부터 제거하려 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장학량, 양호성 장군이 장개석을 납치 구급했고 국공(國共) 양당이 협력해 우선 일본군부터 막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로써 국공합작이 이루어졌고 공동으로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본서의 뒷부분에도 매우 완곡하게 나오듯 공산당 군대는 국민당 군대만큼 전력으로 일본군에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뒷전에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했다. (이 부분도 간체 중국판에서는 원본의 해당 부분을 삭제하거나 변경했음) 중국 공산당이 장학량, 양호성의 행위를 의거(義舉)로 높이 평가한다면 ‘민족주의’라는 용어를 삭제해서는 결코 안 된다. 또한 모택동이 장개석의 공격으로부터 한숨을 돌리고 농촌 지역에 기지를 확충하면서 세력을 키웠던 것도 실은 ‘민족주의’에 호소했기에 가능했던 것이고, 또한 정권을 잡게 된 요인도 ‘민족주의’ 덕분인데, 왜 이렇게 관건적인 용어 ‘민족주의’를 간체 중국판은 삭제하여 문장의 뜻을 호도했을까? 중국은 과거부터 ‘천하국가’의 보편적인 질서를 추구했기에 ‘중국’이란 용어도 문화적인 관념으로 이뤄진 것이지 ‘민족’의 관념으로 성립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서구 열강의 침략과 착취에 맞서 자국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서양의 민족국가 관념을 빌려와 대항했다. 손중산이 그러했고 장개석이 그러했고 모택동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손중산은 선전지명이 있었는지 ‘중국 내부 각 민족의 평등’ 및 ‘우리를 평등하게 대하는 세계 민족과 연합’하겠다고 선언했음)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 상황은 변했다. 한나라나 당나라 때처럼 ‘천하국가’의 보편적인 질서를 추구할 수 있는 국력이 못 되었고 또한 국제적인 정세가 그런 패권을 허용하지도 않았다.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다만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함) 게다가 중국은 56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민족주의를 표방한다면 다양한 소수민족이 독립을 요구해도 막을 명분이 없어진다. 이 문제는 서장(티베트)이나 신강 지역의 독립운동을 상기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공산당은 ‘민족주의’로 정권을 잡았지만 ‘민족주의’를 선양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곤경은 설령 장개석이 중국 대륙의 정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역사적인 인물의 평가에서도 이런 고민을

(2) 그런데 등소평의 개혁개방 이후 1990년부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영향력은 전국의 중급 도시까지 범람하고 있습니다.²⁴⁾

(3) 중국 공산당은 북벌 이후 원래 분산되어 있던 무력을 강서성 소비에트 정권 지역으로 집결시켜 남경의 국민당 정부와 계속 대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조직한 홍군(紅軍)은 20만 명이 넘었는데 강서성에서 장정(長征)을 떠날 때 장국도(張國燾) 부대가 합류하여 공산당 군대는 15만 명 정도가 추가되었습니다. 대일 항전 기간에 국민당과 공산당은 ‘합작’하여 항일했는데, 공산당 군대가 발전시킨 적진의 후방 유격대는 총병력이 90만 명이라고 호언했습니다.

항전 시기 일본이 내세운 괴뢰 정권은 ‘만주국’·북경의 유신정권 및 남경의 왕정위(汪精衛)정권이 있었는데, 이들도 각기 무력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만주국’의 병력이 막강하여 전쟁이 종료되었을 때 40만 대군이라고 선전했습니다.²⁵⁾ 공산당의 군대와 괴뢰 정권의 군대만 해도 그 숫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가 전개한 주요 전쟁에서²⁶⁾ (중략) 그러므로 항전 시기 다양한 세력의 중국 전체 병력은 700-800만 명이나 됩니다. 중국 역사상 이 정도 규모의 무장 병력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대일 항전이 종료되자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내전이 폭발했습니다. 양측 대군이 접전할 때마다 10-20만 병력이 충돌했습니다. 국공 내전 3대 전쟁 중의 하나인 요심(遼瀋: 금서(錦西)라고도 함) 전투에서 국민당 50만 병력이 참패하여 흩어졌고, 서방(徐蚌: 회해(淮海)라고도 함) 전투에서 유백승(劉伯承)·등소평(鄧小平)이 50만 병력 이상을 지휘하여 국민당 황유(黃維)의 몇 개 병단(兵團)을 포위했는데, 그렇다면 쌍방의 대치 병력은 100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중국 대륙이 공산당에게 넘어간 뒤 중국 공산당의 몇 개 대규모 군구(軍區)마다 수십 만 병력

얻을 수 있다. 과거 역사에서는 이민족의 침입, 즉 여진족 금나라를 막았던 악비(岳飛)와 몽고족 원나라에 굴복하지 않았던 문천상(文天祥)을 대단히 높게 평가했는데, 이런 평가를 현재까지 유지하면 다민족 국가 중국으로서의 한족과 내몽고 지역의 몽고족, 한족과 동북 지역의 과거 여진족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요컨대 중국 공산당 정부는 ‘민족주의’를 강조할 수 없는 고충이 있기 때문에 간체 중국판은 이 부분에서 원문을 심하게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

- 24) 8장 2절 <중국 근대경제의 변화> (p.412). 등소평의 개혁개방으로 중국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인 이후 빈부 격차가 도시 대 농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륙의 중급도시로까지 파급되고 있다는 점을 간단히 언급한 것인데 간체 중국판은 삭제했다.
- 25) 간체 중국판은 다음 부분 “항전 시기 일본이 내세운 괴뢰 정권은 ‘만주국’·북경의 유신정권 및 남경의 왕정위(汪精衛) 정권이 있었는데, 이들도 각기 무력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만주국’의 병력이 막강하여 전쟁이 종료되었을 때 40만 대군이라고 선전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 다음 단락 끝 “중국 역사상 이 정도 규모의 무장 병력은 전례가 없었습니다”에 이어놓았다.
- 26) 간체 중국판은 “공산당의 군대와 괴뢰 정권의 군대만 해도 그 숫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가 전개한 주요 전쟁에서” 이 구절이 삭제되었다.

을 보유했으므로 전국적으로 300만 명 이상의 현역 군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건너온 뒤 중국대륙에서 참전했던 잔여부대 중 대만해협을 건너온 병력만 90여 만 명이었습니다. 현역 군인이 이처럼 많았다는 사실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상을 종합하여 요약하면, ‘군사화’란 정권이 합법성을 잃었을 때 총대에서 정권이 나왔음을 의미합니다. 실력을 장악한 자가 자원도 장악합니다. (중략) 남경 정부 시절의 10년 건설도 장개석 독재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광서성과 산서성의 지방 건설도 각각 계파(桂派)와 염석산의 군사 통치 하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심지어 대일 항전 시기에 강적이 앞에 있는데도 일부 내지의 농촌 지역 — 이를 테면 호남성 서부, 그리고 후방 유격 지구의 지도자들은 최대한 개혁을 진행하여 어찌 해 볼 도리가 없는 가운데서도 일시적으로나마 그 지역의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중략) 「군사화」는 무력으로 국민을 통치하는 것이며, 강제적인 수단은 제도적인 관리가 아닙니다. (후략) (8장 4절 <중국의 군사화 현상> p.427-428)

(4) 이렇게 본다면 격렬한 혁명이든 점진적인 적응이든 사실상 모두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²⁷⁾

(5) 이때부터 독재 정권이 오랫동안 러시아를 통치했다가 1989년에 이르러 러시아는 해체되고 맙니다.²⁸⁾

(6) 중국 공산당의 혁명은 강서성 소비에트 정권 지역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훗날의 혁명 역량을 실질적으로 장악할 수 있었던 계기는 후방의 유격 기지에서 방대한 농촌의 지지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중략) 등소평의 개혁개방은 시계추가 국민당 남경 정부 시대로 되돌아 간 것입니다. 오늘날 중국의 일부 농촌은 이미 도시와 농촌 사이의 혼합체가 되었는데, 절강성의 농촌이 그러합니다. 또한 일부 농촌은 일단 옆으로 방치해 놓은 상태인데, 하남성의 농촌이 그러합니다. 시계추가 중간에 왔을 때야 비로소 중국은 100년의 휘청걸음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²⁹⁾

27) 8장 6절 <시대사상과 문화변천> (p.441). 간체 중국판이 삭제한 이 구절 앞에는 다음 내용이 있다. “그러나 문화 활동의 기타 영역, 예를 들어 희극이나 영화 그리고 회화 분야에서는 중국과 서양 그리고 전통과 현대를 융합하여 괄목할만한 성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이후 정권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야기된 ‘문화대혁명’과 같은 전통문화 말살 행위를 예뉘러 비판한 것으로 간주하여 삭제한 듯하다.

28) 8장 7절 <중국 근대혁명과 러시아 혁명의 비교> (p.443). 간체 중국판이 삭제한 이 구절 앞에는 다음 내용이 있다. “1918년 공산당이 러시아를 장악한 뒤 ‘소비에트’ 독재로써 사유 재산을 폐지하려 했으나, 공산당의 제도 아래서는 생산력이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1921-1928년 사이 ‘신경제정책’을 실시하여 제한적인 개인경제를 허용했습니다. 1928년 이후 스탈린(Joseph Stalin, 1879-1953)이 정권을 잡으면서 집단농장과 함께 공업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독재나 해체 같은 용어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듯하다.

29) 간체 중국판은 원본의 8장 7절 <중국 근대혁명과 러시아 혁명의 비교> (p.446) 한 페이지

(7) 이제 중국도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했던 독재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물론 독재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계화 시대에 적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³⁰⁾ (후기)

■ 삭제4. 장개석 및 국민당의 공헌 의도적 말살

(1) 그러므로 8년 대일 항전은 의외로 연해 공업을 내지로 확산하는 효과가 있었고, 그로 인해 1950년 이후 중국의 공업화를 촉진하는데 일조했습니다.³¹⁾

지 분량을 모두 삭제했다. 빈체 대만판 전문은 아래와 같다. “중국 공산당의 혁명은 강서성 소비에트 정권 지역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훗날의 혁명 역량을 실질적으로 장악할 수 있었던 계기는 후방의 유격 기지에서 방대한 농촌의 지지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침략군은 연해 지역 및 철도 교통선 상의 대도시를 점령했고 또한 주요 교통 노선을 점거했으므로 중경(重慶)의 국민당 정부는 실력의 근거지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방대한 농촌 지역은 주요 교통 노선에 쫓겨아 봉지 모양의 땅덩어리로 조각났습니다. 따라서 내지의 농촌은 사실상 도시경제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과거의 농촌 시장 네트워크 공동체로 회귀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런 지역에 유격 기지를 구축하며 농촌을 조직하고 농촌을 동원하는 수단을 터득했으며, 그로 인해 본래 도시에 의지하거나 굴복했던 농촌 사회 및 농가 수공업 교환 시스템이 부활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축된 광대한 농촌 지지 주변으로 국민당의 군대는 열선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국민당 군대는 전력을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먼 길로 우회하여 보급품을 운송했습니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농촌에 기지를 구축했던 중국 공산당은 그저 고향 주변에서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국민당 군대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은 승부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자, 특히 모택동은 농촌에서 시작하여 정권을 장악했으며, 정권을 장악한 후에도 여전히 농촌사회의 경험을 치국 방침으로 삼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차지한 이후 계속된 이런저런 운동은 모두 농촌의 경험을 발판으로 전 중국을 개조하려는 실험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이런 개조 방법은 또한 스탈린이 공업 기지를 중시했던 방법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대 중국의 세 차례 혁명은 그 사이의 계승 및 연속 관계가 격렬한 분열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황인우는 장개석이 근대 중국의 상층기구를 건립했고, 모택동은 농촌을 기초로 하는 하층기구를 건립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그 과정의 일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등소평의 개혁개방은 시계추가 국민당 남경 정부 시대로 되돌아 간 것입니다. 오늘날 중국의 일부 농촌은 이미 도시와 농촌 사이의 혼합체가 되었는데, 절강성의 농촌이 그러합니다. 시계추가 중간에 왔을 때 비로소 중국은 100년의 휘청걸음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삭제한 이유는 간단해 보인다. 대일 항전 당시 공산당 유격대의 사심(私心)과 비협조,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모택동의 실정과 실책, 중국 정부가 자랑하는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은 국민당 남경 정부 시절로 회귀한 셈, 중국은 광활하여 하남성처럼 일부 지역은 방치한 상태 등등의 지적은 중국 공산당 정부의 도덕성, 합법성, 치국 능력 등에 대한 비판이므로 그대로 둘 수는 없었을 것이다.

30) 간체 중국판은 이 구절 전체를 삭제했다.

31) 간체 중국판은 ‘1950년 이후 중국의 공업화를 촉진하는데 일조했습니다’에서 ‘1950년’이

(2) 황인우(黃仁宇)는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 정부가 근대 중국의 상층기구를 건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³²⁾

■ 사례5. 영토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

(1) 당나라 말기 거란족이 흥기하고 오대(五代) 시절에 석경당(石敬瑭)이 연운 16주(燕雲十六州)를 거란에게 바친 이후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때까지 수백 년간 하북(河北) 지역은 더 이상 중국의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4장 8절 <민족관계> p.190)

(2) 서장(西藏:티베트) 고원은 사실상 청나라 때가 되어야 비로소 중앙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습니다.³³⁾ (4장 9절 <중국의 대외 관계> p.201)

(3) 정지룡은 범람의 가장자리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대성했고, 정성공은 외롭게 명나라에 충성하며 청나라에 저항했고, 그와 동시에 한족들과 손을 잡고 대만을 개척했습니다.³⁴⁾ 정씨집단이 대만을 점거한 이후부터 수천 년 동안 중국과는 유리되었던 외딴섬 대만은 마침내 중화문화권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6장 10절 <대만의 역사 무대> p. 332)

(4) 동시기 유럽 열강, 스페인·포르투갈·네덜란드·영국은 모두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식민지 개척에 열을 올렸습니다. 새롭게 건국한 미국도 국가의 역량을

삭제되었다. 이 구절의 앞에는 다음 내용이 있다. “1937년부터 1945년까지 8년에 걸친 대일 항전 기간에 전통적인 경제 형태의 시장 네트워크는 내륙 오지 및 유격대 구역에서 다시 그 기능을 발휘하여 중국의 항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한편 전쟁을 피하여 연해 지역으로부터 내지로 공장을 옮겼던 수 백 천 개 ‘사천성 이전 공장’[천천공장(遷川工廠)]은 서남부 지역에서 설비를 조립 가동하여 상품을 생산했습니다. 낡고 망가진 공장이었지만 중국 내지의 공업 발전에 기틀을 제공한 것입니다.” (8장 2절 <중국 근대경제의 변화> p.414)

32) 간체 중국판은 다음 한 단락을 삭제했다. “황인우(黃仁宇)는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 정부가 근대 중국의 상층기구를 건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근대 교육과 그로 인해 배출된 인제는 상층기구를 건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황인우는 또한 모택동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 정부는 농촌을 기초로 하는 하층기구를 건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상층기구와 하층기구가 조정하여 결합시킬 과제만 남았습니다. 중국이 더욱 발전하려면 상층기구와 하층기구가 결합되어야 하며, 그렇게 되었을 때 중국의 연해와 내지, 도시와 농촌 사이의 단절도 성공적으로 융합될 수 있을 것입니다.” (8장 3절 <교육제도의 변화> p.421)

33) 삭제된 이 구절 앞에는 다음 내용이 있다. “당 제국의 책봉 체제 안에 있던 동방의 한반도 국가와 비교했을 때 토번과 남조는 독립성이 대단히 강한 국가였습니다. 토번과 남조는 당나라 때 건립되었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34) 번체 대만판 원본은 다음과 같으나 “그와 동시에 한족들과 손을 잡고 대만을 개척했습니다”, 간체 중국판은 이 구절에서 “한족들과 손을 잡고”(手攜華人)를 삭제했다.

투입하여 서부 지역에서 식민지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에 비하면 청나라 정부는 민간이 대규모 이민과 척식(拓植)을 진행한 이후에야 비로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지방 행정기구를 마지못해 설치했습니다. 서구 열강과 청나라 정부를 비교하면 청나라 중국은 사실상 적극적인 식민 정책을 펼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7장 2절 <대만 개발> p.343)

■ 삭제6. 친일과 문제

(1) 이들은 대부분 일본으로 유학하여 양호한 교육을 받고 왔으므로 예의가 바르고 인간성이 선량하며 우아한 문화적 소양도 갖추었습니다. 이들은 질서가 있는 사회에서는 사회를 안정시키는 힘이었지만 그러나 '천하를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명감이나 자부심은 없었습니다. (8장 9절 <대만 백년의 변화> p.454)

(2) 곧 '천황의 어린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황민은 일본 본토의 국민과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았으므로 일부 대만인 가정은 기꺼이 동화되어 황민의 신분을 얻으려 했고, 또한 원래 경배하던 신령이나 조상을 버리고 일본 신사(神社)에 '삼베'(麻)를 청해 모시기도 했습니다. (중략) 그러나 일본의 황민운동은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 식민지 국민 중에 오로지 대만인만이 과거의 식민지 주인을 오래토록 그리워하면서도 본인들은 결국 일본의 이등 국민이었을 따름이란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8장 9절 <대만 백년의 변화> p.454)

■ 삭제7. 기타

(1) 군인의 지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슬람 제국의 초기에는 국민 개병제였고 교단 자체가 하나의 전투 조직이었습니다.³⁵⁾ (4장 10절 <당나라 제국과 이슬람 제국의 비교> p.206)

(2) 특히 영리(永利)³⁶⁾ 화공 그룹의 후덕방(侯德榜, 1890-1974)과 같은 인체가 독자적인 소다 제조법을 개발하여 국제적으로 존경을 받기도 했습니다. (8장 3절 <교육제도의 변화> p.420)

35) 간체 중국판이 삭제한 이유는 불분명하다. 실수였거나 편폭을 줄이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다.

36) 번째 대만판 원본은 '永祥久大化工學工業集團'으로 되어 있으나, '영상'은 '영리'(永利)의 오타인 듯하다. 간체 중국판은 '永祥久大化工學工業集團'을 삭제했고, '국제적으로 존경을 받기도 했습니다' 바로 뒤에 다음 구절을 추가했다. '아울러 중국의 독자적인 화학공업 기업을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 변경1. 중국 공산당에 불리한 내용

(1) 중국의 근대 혁명은 자신만의 형태와 발전 과정이 있으므로 러시아와 유사하면서도 달랐습니다. 1911년부터 1949년 사이, 중국의 혁명은 3단계를 거쳤습니다. 1911년 중화민국이 건립되었고, 1928년 국민당이 북벌을 단행했고, 1949년 공산당이 새로운 정권을 세웠습니다. 실패했던 혁명 태평천국까지 여기에 추가하면 중국의 혁명은 근 100년을 거친 셈입니다. 1950년 이후 중국 공산당은 수차례 심각한 변란을 겪었는데, 특히 '문화대혁명'이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등소평이 등장하면서 혼란을 바로잡아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중국의 근대 혁명은 100년을 훨씬 초과했습니다.³⁷⁾

(2) 그러나 '군사화된 지방 세력이 강력했으므로 새로 건립된 중화민국은 통일된 국가 기구를 재건할 수 없었습니다. 중화민국이 건립된 이후 군벌이 할거하며 10여 년 간 소란을 피운 것도 실은 '군사화'가 확대되고 심화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신해혁명과 '군사화' 현상 그리고 사회 세력의 신장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³⁸⁾

(3) 대일 항전 8년 동안 중국은 엄청난 재난을 입었으나 예상 밖의 소득도 있었습니다. 연해 지역에 거주하던 수많은 인구가 내지로 피신했는데, 이때 인재, 기술, 관념도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중략) 포탄이 터지는 이수라장에서도 8년 동안 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은 곳곳하게 가르치고 배워 마침내 10여 만 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전후 재건에 유용한 인재를 제공할 수 있었는데, 중국이나 대만 모두 그 혜택을 보았습니다. 농촌과 유리된 지식인들이 사회로 융합된 것이 중국의 제2단계 혁명의 특색입니다.³⁹⁾

37) 간체 중국판은 이 단락 전체를 다음과 같이 간단히 요약하며 중국 공산당 정권에 불리한 내용은 삭제했다. "중국의 근대 혁명은 자신만의 형태와 발전 과정이 있으므로 러시아와 유사하면서도 달랐습니다. 1840년부터 1949년에 이르기까지 중국 사회는 여러 차례 중대한 변화를 겪었는데, 태평천국으로부터 중화민국 건국을 거쳐 국민당 북벌 등등까지 약 100년이나 되는 긴 세월이었다." 문맥도 이상하고 내용도 부실하게 요약했다. 특히 1950년 이후 중국이 변란을 겪었다거나 문화대혁명이 그 절정이었다는 내용은 전부 삭제했다. 또한 원문의 '1911년부터'를 '1840년부터'로 변경했다. (8장 7절 <중국 근대혁명과 러시아 혁명의 비교> p.443)

38) 간체 중국판은 마지막 구절 "신해혁명과 '군사화' 현상 그리고 사회 세력의 신장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습니다"를 "신해혁명과 '군사화' 현상 그리고 사회 세력의 신장은 상호 부분적인 관련이 있었습니다"로 변경하여 의미를 약화시켰다. (8장 7절 <중국 근대혁명과 러시아 혁명의 비교> p.445)

39) 간체 중국판은 "중국이나 대만 모두 그 혜택을 보았습니다. 농촌과 유리된 지식인들이 사회로 융합된 것이 중국의 제2단계 혁명의 특색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국이나 대만'을 '전국'으로 변경했고, '중국의 제2단계 혁명'을 '대일 항전의 특색'으로 변경했다. 중국 정부는 대만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또한 대만을 중국 고유 영토의 일부라 주장하기에 '중

(4) 최근 150년 간 중국은 서양의 충격으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중국인들은 그로 인해 자신의 문화전통을 처음에는 의심했다가 나중에 포기하기도 했습니다.40) (후기)

(5) 한편 오랫동안 주도권을 잡았던 서양문화는...(후략) 41) (후기)

(6) 재난을 겪었던 우리 중국인들도 새롭게 분발해야 합니다.42) (후기)

■ 변경2. 현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정책을 연상

(1) 한족의 이런 행태는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제국주의적인 식민지 침략입니다.43)

(2) 중국 남부 지역의 개발을 두고, 지금까지는 그저 소수민족들이 동화되었고, 한족들이 영토를 넓힌 것으로만 인식되었습니다.44)

(3) 중국 대륙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정성공은 대만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명 나라 망명정부 정씨 정권을 세우게 됩니다.45)

■ 변경3. 대만의 지위나 독립을 억압하려는 의도

국이나 대만'을 '전국'으로 고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중국의 제2단계 혁명'을 '대일 항전의 특색'으로 고친 것은 이미 앞에서 근대 중국의 3단계 혁명 부분을 삭제했으므로 앞뒤가 맞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변경했을 것이다. (8장 7절 <중국 근대혁명과 러시아 혁명의 비교> p.445)

- 40) 간체 중국판은 원본의 "최근 150년 간 중국은"(最近一個半世紀的中國)을 "아편전쟁 이후"(鴉片戰爭以後)로 변경했다.
- 41) 간체자 중국판은 원본의 "長期獨霸的西方文化"를 "強勢西方文化"로 변경했다. 중국 정부는 아직도 독(獨)이나 패(霸)라는 글자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 42) 간체 중국판은 원본의 "中國人在災難之後,必須重新振作"를 간단히 줄여 "在此時,中國人責無旁貸"로 변경했다.
- 43) 간체 중국판은 이 구절의 '제국주의적인 식민지 침략'을 '한(漢) 제국의 확장'으로 변경. (3장 6절 <남방 개척> p.117)
- 44) 번째 대만판 원본의 '漢人的開展'을 간체 중국판에서는 '漢人的拓展'으로 변경했다. '開展'은 확대하여 전개시키다. '拓展'은 개척하여 발전시키다. 모두 영토를 확장했다는 의미로 사용했으므로 의미상 차이는 별로 없는 듯하지만, 간체자 버전에서는 그 앞에서 두 단락이나 삭제했고, 또한 중요한 구절 "한족의 이런 행태는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제국주의적인 식민지 침략입니다"를 "한족의 이런 행태는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한 제국의 확장입니다"로 변경했으므로 나름 심사숙고 끝에 '開展'을 '拓展'으로 고친 듯하다. (3장 6절 <남방 개척> p.125)
- 45) 간체 중국판은 '대만을 공격하여 점령하고'(攻占臺灣)를 '대만에'(在台灣)로 변경하여 의미를 약화시켰다. (6장 10절 <대만의 역사 무대> p.330)

(1) 대만의 역사 무대⁴⁶⁾

(2) 그렇다면 대만 남도어계 원주민의 조상은 간신히 살아남은 백월의 후예일까요? 대만을 출발하여 아시아 태평양 군도의 북단으로부터 점차 이동하여 남방 여러 섬으로 이주했을까요?⁴⁷⁾

(3) 대만을 차지하는데⁴⁸⁾

■ 변경4. 기타

(1) 토마토⁴⁹⁾

(2) 일본이 대만을 통치하는 동안 문명적인 건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중략) 이런 조치는 청나라 지배 당시의 행정과 비교가 되었으므로 대만 백성들은 일본을 충심으로 믿고 복종했습니다.⁵⁰⁾

■ 수정

(1) 일본은 한나라 때 ‘한위노국왕’(漢委奴國王)의 금인(金印)을 받았습니다.⁵¹⁾

46) 변체 대만관 원본의 6장 10절의 제목은 ‘대만의 역사 무대’(臺灣의歷史場合)이다. 간체 중국판은 ‘명나라 때 대만(明朝時的台灣)’으로 변경했다. (6장 10절 <대만의 역사 무대> p.325)

47) 간체 중국판은 다음과 같이 변경했다. “대만 원주민의 조상은 간신히 살아남은 백월의 후예일까요?” (6장 10절 <대만의 역사 무대> p.326)

48) 변체 대만관 원본은 다음과 같다. “정씨 집안과 대만은 각별한 사이였고 또한 대만에 대한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었는데, 이런 점들이 훗날 정성공이 대만을 차지하는데 어느 정도는 기초가 되었을 것입니다.” 간체 중국판은 여기서 ‘대만을 차지하는데(據有臺灣)’를 ‘대만을 다스리는데(治台)’로 변경했다. (6장 10절 <대만의 역사 무대> p.329)

49) 변체 대만관 원본의 ‘番茄’, 간체 중국판은 ‘西紅柿’로 변경했다. 지역에 따라 달리 부르기 때문에 중국 대륙 독자를 위한 배려로 보인다. (6장 2절 <인구와 생활 자원> p.276)

50) 간체 중국판은 ‘문명적인 건설이 있었다’를 ‘몇몇 가지는 거론할 만하다’로 변경하여 의미를 대폭 축소했고, ‘대만 백성들은 일본을 충심으로 믿고 복종했습니다’를 ‘청나라 시기의 행정과는 모두 달랐다’로 변경하여 역시 의미를 크게 약화시켰다. 이 부분의 전후 원문을 모두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이 대만을 통치하는 동안 문명적인 건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후등신평[後藤新平, 고토 신페이, 1857-1929]부터 시작된 문치 정책은 대만을 철저히 동화시켜 영원히 일본의 영토로 만들려는 게 목적이었지만, 그러나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칭찬할 만한 치적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을 보급했고, 공공위생을 엄격하게 추진했으며 법률을 엄정하게 집행했던 따위입니다. 이런 조치는 청나라 지배 당시의 행정과 비교가 되었으므로 대만 백성들은 일본을 충심으로 믿고 복종했습니다.” (8장 9절 <대만 백년의 변화> p.454) 이 문제에 관한 허탁운의 보충 설명은 각주 16 참고.

51) 변체 대만관 원본은 ‘한위노국왕’(漢委奴國王)으로 되어 있으나, (p.199) 간체 중국판은

(2) 송기(宋祔)⁵²⁾

(3) 이런 분위기에서는 하극상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진신이 주요 구성원이던 관료체계가 황제와 담판하여 내부적으로 경천동지할 개혁을 단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⁵³⁾

■ 보충

(1) 중국의 군사화 현상⁵⁴⁾

■ 왜곡

(1) 위와 같은 사회진화론 및 과학주의 신념은 근 100여 년 동안 중국 지식계를 장악했으며 아직까지도 그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근대 중국의 사회사상은 사회진화론 및 과학주의 신념의 영향을 받아 사실상 문화 및 학술의 발전 방향을 상당히 잘못 이끌었습니다.⁵⁵⁾

위(委)를 왜(倭)로 변경했다(p.159). 1784년 일본에서 발굴된 금인(金印)인데 진위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 현재 후쿠오카(福岡) 시립박물관 소장되어 있으며, 새겨진 글귀는 번체자 대만 원본에서 표기한 '한위노국왕'(漢委奴國王)이다. 따라서 굳이 수정할 필요는 없었다.

- 52) 번체 대만판 원본은 송기(宋祔)로 되어 있으나 송기(宋祔)의 오타. 간체 중국판에서는 송기(宋祔)로 바로 잡았다. (5장 5절 <송나라 이후의 지식층> p.236)
- 53) 번체 대만판 원본의 원문은 이러하다. “這種情勢，若不是從下而上的革命，縉紳爲主體成分的官僚體系，迨難與虎謀皮，有內部發動翻天覆地之巨大變革.” 간체 중국판은 ‘道’를 ‘殆’로 변경했다. 대만 번체자 원문의 오타를 바로 잡았다. (8장 8절 <중국 유신운동과 일본 명치유신의 비교> p.450)
- 54) 번체 대만판 원본의 8장 4절의 제목은 ‘中國의武化現象’으로 되어 있으나 간체 중국판은 제목 앞에 ‘근대(近代)’를 추가하여 ‘近代中國의武化現象’(근대 중국의 무력화 현상)으로 변경했다. 본 절의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보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55) 번체 대만판 원본은 이러하다. “근대 중국의 사회사상은 사회진화론 및 과학주의 신념의 영향을 받아 사실상 문화 및 학술의 발전 방향을 상당히 잘못 이끌었습니다.” 간체 중국판은 이 부분을 정반대의 뜻으로 고쳐, “근대 중국의 사회사상은 사회진화론 및 과학주의 신념의 영향을 받아 문화 및 학술의 발전 방향을 사실상 상당히 이끌었습니다”로 변경했다. 번체 대만판 원본의 원문은 “오도(誤導:잘못 이끌다)”로 되어 있는데 간체 중국판은 “인도(引導:이끌다)”로 변경하여 본뜻을 정반대로 바꾸었다. 이것은 명백한 왜곡으로 보인다. 다윈의 진화론은 과학주의 산물 중 하나이고, 사회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시킨 것이다. 공산주의 유토피아론은 물론 과학주의 산물이고, 공산주의 사회이론은 사회진화론이 근저에 깔렸다. 사회진화론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 그 시대를 정당화하기 위해 강대국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강자의 이론’에 불과하며 지금 이 이론을 받아들이는 사

3.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삭제 혹은 변경한 내용이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간체 중국판이 삭제 혹은 변경한 내용을 귀납 정리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만 독립을 고취할 수 있는 내용. 둘째, 친일과 문제를 포함한 민족 갈등의 소지가 있는 내용. 셋째, 중국 공산당에 불리한 내용. 넷째, 중국 국민당의 공헌. 이 넷 중에서도 특히 첫째와 셋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과민한 반응을 보이며 가차 없이 삭제하거나 변경했다. 저자 허탁운은 인터뷰에서 간체 중국판의 삭제 및 손질 문제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언급한 적이 있다.

이희우(李懷宇): 선생의 《만고강하》는 ‘대만 백년의 변화’로 끝났습니다.⁵⁶⁾

허탁운(許倬雲): 이 책은 원래 대만 사람들 보시라고 저술한 것이라, 대만에서 출판했습니다. 중국에서 출간은 갑작스레 이뤄진 것이죠. 중국에서 발행할 때 일

람은 거의 없다. 각 사회는 그 사회에 맞는 모습이 있으며 그것은 차이의 문제일 따름이지 우열이 문제가 아니다. 진화론에 대한 찬반이 아직도 분분하다. 그러나 진화론 및 사회진화론의 해악은 결코 적지 않았다. 미국 내 보수단체인 코럴 리지 미니스트리즈(Coral Ridge Ministries)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의 사회주의는 다윈의 진화론에 근거하여 확립되었다”고 지적했다. 진화론은 공산주의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러시아의 민중봉기 이론을 수립한 허간, 볼셰비키 혁명을 주도한 레닌, 피의 숙청을 단행한 스탈린 그리고 중국 공산당을 창건한 모택동 등은 진화론에 입각해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레닌과 스탈린은 다윈을 지식의 영웅으로 추앙하여 모스크바에 그를 기념하는 다윈 박물관도 세웠다. 모택동은 다윈과 헤켈 및 히틀러에게 심취해 공산당원들에게 약육강식 사상을 집중적으로 교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윈주의는 나치즘(Nazism)과 공산주의(communism)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 것이다. 레닌·스탈린·모택동·폴 포트·카스트로 등등 과거나 현재의 공산주의 독재자들은 모두 철저한 과학적 유물론자였으며 과학적 합리화와 윤리적 정당성을 위해서 진화론을 장려하였다. 군국주의 시대의 일본도 진화론적 약육강식의 논리에 입각해 국력이 쇠약한 조선과 청나라를 침략했다. 이처럼 진화론은 사랑과 공생의 원리가 아닌 힘의 논리에 따른 지배 원리를 확산시켰다. 힘의 논리, 모택동이 1927년 8월 7일 “총대에서 정권이 나온다는 주장”과 비교하면 왜 간체 중국판이 이 구절의 관적인 단어를 의도적으로 바꾸어 원본의 뜻을 곡해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6) 《만고강하》 마지막 8장의 마지막 9절이 <대만 백년의 변화>이다.

부 내용이 약간 변경되었지만 그러나 저서의 생기를 크게 손상하지는 않았습니다. 《만고강하》를 집필하며 원칙을 세웠습니다. 정치, 전쟁, 제도, 왕후장상(王侯將相)은 피하고 일반 백성에 대해 쓰기로 했습니다.⁵⁷⁾

‘일반 백성에 대해 쓰기로’ 했다는 점에서는 ‘저서의 생기를 크게 손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 간체 중국판은 일부 내용을 변경한 것은 물론이고 삭제된 내용도 상당히 많으며 심지어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본의를 왜곡했다. 따라서 ‘일부 내용이 약간 변경’된 것으로만 알고 있다면 허택운 본인이 삭제나 변경된 부분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혹은 《상해문예출판사》가 삭제나 변경된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간체 중국판의 삭제 및 변경 내용을 검토하면 《상해문예출판사》 편집부의 ‘자기 검열’이 다소 과하지 않았나 싶다. 물론 《만고강하》가 발행된 2006년 당시 중국 대륙의 출판 환경이 신해혁명 100주년인 2011년 전후의 분위기만큼 자유롭지는 않았겠지만,⁵⁸⁾ 그러나 중국 대륙의 독자들도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해문예출판사》 간체 중국판이 번체 대만판 원본과 같지 않다는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면, 원본의 일부 민감한 내용을 삭제 내지는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중국 대륙의 독자에게 소개하고 싶은 좋은 책이라 《상해문예출판사》는 판단했을

57) 李懷宇: “你的《萬古江河》就是把『臺灣百年的變化』作為最後一節。” 許傳雲: “因為這本書本來是寫給臺灣人看的, 本來在臺灣發行, 在大陸發行是蹦出來的。在大陸發行時改了一些, 但是不太傷元氣。寫《萬古江河》時我有原則, 不寫政治、戰爭、制度、帝王將相, 寫老百姓。”(《訪問歷史》<只有“全人類”和“個人”是真實的>,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7. 09)

58) 일례로 중국 대륙의 분위기는 그 동안 장개석의 국민당 남경정부 10년 건설(1927-1937)을 비롯하여 복벌과 대일항전 등의 업적을 무시했다. 그러나 2011년 10월 10일 신해혁명 100주년 기념일을 전후하여 중국 대륙의 분위기도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의 자신감이 반영되었는지 정치적인 금기도 다소 완화되면서 중국 학계도 장개석과 국민당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내놓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 근대사 연구자 양천석(楊天石)과 양규송(楊奎松)은 몇 년 전에 공개된 장개석(蔣介石)의 원본 일기를 연구하여 장개석 및 중화민국에 대하여 중국 공산당 정부의 과거 관점과는 다른 연구결과를 꾸준히 발표해 주목된다. 《找尋真實的蔣介石: 蔣介石日記解讀(上下冊)》(楊天石, 山西人民出版社, 2008), 《找尋真實的蔣介石》(楊天石, 山西人民出版社, 2010) 참고.

수도 있다.⁵⁹⁾

따라서 《만고강하》를 원문으로 보겠다면 반드시 번체 대만판 원본을 읽어야 하며, 간체 중국판을 읽어서는 서술의 객관성 및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특별히 거론하는 이유는 동일 서적이 대만과 중국에서 출간되는 경우, 대개 간체 중국판을 구입하는 경향이 많다. 이는 물론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구입 편의성, 둘째는 가격 문제이다. 한국에 있는 중국 전문서점은 대개 중국대륙 출판물 위주로 경영한다. 이것이 구입의 편의성이다. 지금은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으나 그래도 동일서적인 경우에 중국 출판물 가격이 대만 출판물보다는 여전히 저렴하다. 이것이 가격 문제이다. 그러나 일부 서적, 특히 중국 근현대사를 다룬 부분이 있는 출판물은 이른바 '삭제본'이 엄존하므로 주의하지 않을 수 없다.⁶⁰⁾ 이와 함께 중국에서는 아직도 학술이 정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중국에서 출간된 서적이나 정기 간행물을 참고할 때는 이런 점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

59) 간체 중국판에 추천사를 쓴 《상해문예출판사》 편집장 하승위(何承偉)의 글에서 엿볼 수 있다. "27만 자 《만고강하》가 언급한 내용은 지극히 풍부하여 민속과 생활, 사상과 신앙, 문학과 예술, 경제와 사회의 변천, 과학기술의 발전, 문화교류 및 상호 작용 등을 다루었으며, 행간마다 거시적인 식견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섬세한 면모까지 묘사했다. 더욱 중요한 점은 다민족 관점 및 세계적인 시각으로 중국문화의 발전과 변천과정을 해석하여 한족의 문화는 중화문화의 일부일 따름이며, 기타 각 민족의 문화마다 나름 특색이 있고, 그들은 한족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융합하여 마침내 오늘날 다민족의 다원적인 문화체계를 형성했다고 분석했다. 그와 동시에 세계사의 관점에서 다원적이고도 복잡한 중국문화의 발전과정을 분석했다. 비슷한 종류의 저서에서 보기 드문 광활한 시야와 폭넓은 사교가 돋보인다."

60) 근자에 발생한 예를 하나 더 든다면, 중국 북경 《세계도서출판공사》(世界圖書出版公司)가 홍콩 중문대학출판사 번체자 번역본을 간체자로 바꿔 발행한 서중약(徐中約: 영문명은 Immanuel C. Y. Hsu, 1923-2005)의 《중국근대사》(中國近代史: 원명은 The Rise of Modern China)는 원본의 42장을 29장으로 줄여 출판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의 부분을 집중적으로 삭제하거나 편집했으며, 특히 마지막 몇 개 장(章)은 거의 통째로 삭제되었다. '삭제본'은 한국어로 '산절본'(刪節本)이라 부르기도 한다. 중국어로는 殘本、刪節本、刪減版本 혹은 속칭으로 潔本、刪割版本、太監版이라 부른다. 그런데 최근에는 흥미롭게도 정반대 현상이 발생했다. 2012년 1월 1일 《북경 삼련서점》, 《홍콩 삼련서점》, 《대만 원류출판사》가 동시에 출간한 《對照記@1963》(楊照, 馬家輝, 胡洪 著)는 대만판과 홍콩판이 오히려 '삭제본'이고, 북경판이 '완본'(完本)이다. 책이 너무 두꺼워지면 판로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만판과 홍콩판은 '완본'의 27% 가량을 삭제한 것이다. 《만고강하》에서 보듯 중국판은 대개 정치적인 관점에서 손질을 했다면 대만판과 홍콩판은 상업적인 관점에서 손질한 셈이다.

할 것으로 보인다.

< 參考文獻 >

- 《万古江河》，許倬雲，中國上海：上海文藝出版社，2006。
- 《萬古江河》，許倬雲，臺灣臺北：英文漢聲出版股份有限公司，2006。
- 《中國古代社會史論》，許倬雲，中國廣西：廣西師範大學出版社，2006。
- 《西周史》，許倬雲，臺灣臺北：聯經出版事業股份有限公司，1984。
- 《漢代農業》，許倬雲，中國廣西：廣西師範大學出版社，2005。
- 《許倬雲自選集》，許倬雲，中國山東：山東教育出版社，2009。
- 《尋路集》，許倬雲，홍콩，八方文化有限公司，1996。
- 《許倬雲問學記》，許倬雲，中國廣西：廣西師範大學出版社，2008。
- 《訪問歷史》，李懷宇，中國廣西：廣西師範大學出版社，2007。
- 《找尋真實的蔣介石：蔣介石日記解讀(上下冊)》，楊天石，中國山西：山西人民出版社，2008。
- 《找尋真實的蔣介石》，楊天石，中國山西：山西人民出版社，2010。
- 《一九四九國府垮臺前夕：龔選舞回憶錄》，龔選舞，臺灣臺北：衛城出版社，2011。
- 《1949 浪淘盡英雄人物》，林博文，臺灣臺北：時報文化，2008。
- 《出版管理條例》，<http://baike.baidu.com/view/438232.htm>

< 中文提要 >

許倬雲，1930年生，江蘇無錫人。1948年隨家人到台灣。1953年畢業於台灣大學歷史學系，1962年獲美國芝加哥大學博士學位。曾任台北“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研究員，台灣大學歷史系主任。1970年任美國匹茲堡大學史學系及社會系合聘教授，其間多次受聘為香港中文大學、美國夏威夷大學、杜克大學、香港科技大學等校講座教授。四十多年間許氏已有《中國古代社會史論》、《西周史》、《漢代農業》、《求古編》等三十餘部中英文專著問世，

並發表學術論文一百多篇，可謂著作等身，享譽海內外。晚年窮三年之功撰成《萬古江河》，不談帝王將相，只談百姓故事；不講朝代更迭、國家興亡以及典章制度、嘉言懿行，只講疆域伸縮、族群互動、經濟形態、內外交通，同時於日常文化、人群心態及社會思想多所注意，尤其注意一般小民百姓的生活起居及心靈關懷。《萬古江河》以江河流域的擴大比喻文化的進展，從中國文化發軔的地理空間開始談起，論及史前時期中國文化的多元發展與分合，然後細述中國文化在不斷的衝突與融合中，一步步擴大進入世界體系的歷程。於是在許氏筆下，中國依次呈現為中原的中國、中國的中國、東亞的中國、亞洲的中國及世界的中國。如此展延，正如長江黃河，發源于青海高山，流歸于大海，遂與天下衆流無所區別。書題“萬古江河”，命意蓋在此。《萬古江河》首先在臺灣2006年由《漢聲出版公司》發行，好評如潮，立即成爲暢銷書，隨後大陸簡體版由《上海文藝出版社》印行，海峽兩岸中國人幾乎同時能夠讀到名家對中國文化發展提出的創新詮釋。遺憾的是大陸簡體版并非原貌，已對繁體版原本加以刪改。據筆者比勘，發現大陸簡體版刪節39處，改動16處，改正誤字2處，其他2處，少則一兩個字乃至兩三句，多則一兩個段落，甚至於一兩頁，有時文意殘缺，令人不忍卒讀。何故致此？中華人民共和國憲法第三十五條明文規定“言論出版自由”，但實際上中華人民共和國目前還沒有一部《新聞法》和《出版法》，概由國務院直屬“新聞出版總署”嚴密把關，遂使中國大小出版社奉命，按照《出版管理條例》事先對臺灣書刊進行審閱，凡是可能惹是生非的內容一律加以刪節或改動。《萬古江河》什麼內容遭刪節或改動？歸納言之，第一、可能聯想或鼓吹臺灣獨立的內容；第二、可能惹起民族間仇恨的內容；第三、不利於毛澤東及中國共產黨的內容；第四、蔣介石及中國國民黨的貢獻。大陸簡體版面對第一和第三的內容尤其反應過敏，不顧文意連貫，漠視著者本意，大加刪節，亦可以想見中國政府的苦衷何在。近來名家大作不乏海峽兩岸先後印行，韓國的研究人員比較愛購大陸簡體版，此無他，一因購買方便，二因價格也低廉。惟內容涉及上記四端者，大陸簡體版未必原封不動，所謂“閹割版本”儼然存在，吾人選購時不得不留意焉。與此同時，從上所述亦可知學術在中國仍然受到政治的影響，因此，當吾人參考中國書刊之際，應該事先充分考慮到政治干擾學術的問題。

關鍵詞：許倬雲、萬古江河、新聞出版總署、出版管理條例、刪節本

| 원고접수일 | 심사일정 | 1차수정 | 게재확정 | 출간 |
|--------------|-------------|--------------|--------------|--------------|
| 2012. 3. 30. | 2012. 5. 3. | 2012. 5. 12. | 2012. 5. 21. | 2012. 5. 31. |